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9월(제75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오이타현과 홍콩, 인도네시아의 교류 소식입니다!

## 홍콩 중문대학 온라인 교류회 개최



1997년부터 이어진 ‘이누카이정(犬飼町) 와카야유 국제교류회’와 홍콩 중문대학의 홈스테이 교류는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중지됐습니다. 하지만 이 인연을 이어가고자 지난 7월 30일에 제1회 온라인 교류회를 개최했는데, 화면 너머로 홈스테이 참가자와 호스트 패밀리가 만나며 다시금 풀뿌리 교류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일본어 파트너스 인니 파견자 선발



일본어 파트너스  
파견 사업  
인도네시아 제 17기  
오이타현 추천  
프로그램 파견자  
‘이타이 교코  
(板井恭子)’ 씨



독립행정법인 국제교류기금은 아시아 각국의 중고등 교육기관에 폭넓은 연령층의 인재를 파견하여, 일본어 교사 및 학습자의 파트너로서 활동하며 일본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일본어 파트너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이타현에서 파견자가 선발되어 이번 달 인도네시아 수라바야로 향했는데, 앞으로 현지의 교육 지원, 오이타 소개 등 다방면에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우사시 지역 진흥 협력대원이 전해 드립니다!

## 우사시의 가을은? 사이클링! 우사시



안녕하세요, 우사시 관광·브랜드과 장진성(張峻笙)이라고 합니다. 저는 대만 출신으로 현재 풍요로운 농산물, 아름다운 자연, 깊은 역사를 가진 건물이 산재한 우사시에 거주한 지 2년이 되었습니다.

최근 날씨가 선선해지며 가을이 완연해짐을 실감하는데, 가을이라 하면 역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사시에는 주행거리 100km의 배터리 용량을 갖추고, 자전거에 속도와 소모 칼로리 등이 표시되어 운동 의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전기자전거 ‘E-bike’가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아지무·인나이 마을 숲 라이딩(安心院・院内里山ライド)’, ‘아지무 분지 전체 라이딩(安心院盆地まるごとライド)’를 주제로 한 전기자전거 투어가 열리기도 합니다. 두 가지 코스가 있는 이 투어의 주행거리는 약 10~30km로 전문 가이드가 안내해 주어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으며, 휴게소도 잘 마련되어 있어 초보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위처럼 스포츠, 사이클링, 체험형 투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의 우사시 방문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사의 ‘식’을 즐기다!  
후루사토 남세 ‘The USA Box’  
▶‘여행하는 우사’ 인스타그램



TABISURU.USA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9월(제75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더 많은 분들의 국제 감각을 키워 드리고 싶어요

## 국제교류원 노은지 인터뷰 분고오노시

지난해 10월, 오이타현 분고오노시(豊後大野市)에 한국과의 가교가 되어 줄 새로운 국제교류원이 부임했다. 일본어 실력은 물론 당당한 자신감까지 갖춘 그의 이름은 ‘노은지’. 다음 달로 부임 만 1년을 맞는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지난달 온라인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분고오노시에서 국제교류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은지입니다. 이곳에 오기 전 한국에서는 통번역 대학원을 다녔고 그전에는 사회생활을 8년 정도 했습니다. 회사에 다니면서 취미로 일본어를 공부하다가 좀 더 본격적으로 공부해서 업무상에도 활용해 보고 싶다는 꿈이 생겨 국제교류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 주로 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시청 소속이라 대민 업무가 많습니다. 한국어 교실, 문화 강좌, 학교 방문을 주로 하고 있고요, 부산광역시 기장군 및 익산시와 교류 시 통번역, 분고오노시 공식 자료 한국어판 번역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로 만든 분고오노시 홍보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다는 업무를 했어요.

- 한국어 강좌 업무에 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정기 강좌는 1년에 두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년 실시하던 기장군과의 홈스테이 교류를 못 하고 있어서 1개월 단

위의 특강을 추가로 넣어서 하고 있어요.

- 1개월 단기 강좌는 준비도 수업도 장기 강좌와는 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매번 새로운 사람들과 하면 한국어 수준이 다르기에 수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되도록 많은 사람이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짧게 강좌를 하기로 했습니다.

- 참 선생님이지 않아요!

호랑이 선생님이예요. 실력이 안 는다고 상담하는 학생들에게 ‘하루에 공부 몇 시간씩 하세요?’하고 물어보고 그러거든요(웃음).

- 문화 강좌는 어떠세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른 지역의 교류원과 컬래버를 해서 요리 강좌를 하거나, 강연회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8월 초에는 ‘드라마에서는 배울 수 없는 한국 문화’라는 주제로 한국의 결혼식 문화, 대중교통 시스템, 술 문화 등에 대해 특강을 했어요.



- 학교 방문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주로 초등학교 위주로 가는데요,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6, 7월에는 매주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국 소개를 하거나 한글로 자기 이름 쓰기, 만들기 등의 활동을 하고 학교마다 원하는 사항이 다르기에 맞추어 내용을 준비해요.

- 강좌를 하고 나면 아이들의 반응이 어떤가요?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나요?

‘일본의 문화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가 일본에서는 당연해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을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9월(제75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수 있다'라는 국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예전에 어느 학교에서 '한국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식기를 내려놓고 먹는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한 아이가 "개가 밥을 먹는 것 같다(犬食い)"라고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생이 그런 표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당황했지만(웃음), 그 이야기를 계기로 '오히려 한국에서는 식기를 들고 먹으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나라의 것이 반드시 당연한 것은 없다. 한국과 일본이 이웃 나라이고 서로의 외모도 비슷하지만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한국에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뜻깊지만 그런 감각을 키워 주고 싶었거든요.



## - 업무 중에서 특히 보람을 느꼈던 일이 있나요?

제가 갓 부임했을 때는 매년 가을에 기장군과 하던 홈스테이가 코로나 때문에 2년 이상 중지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연시에 연하장을 보내는 일본의 문화에 착안해서 '영상 연하장'을 보내자고 기획을 해 봤어요. 처음에는 분고오노 시민들이 부끄러워하셨지만 '홈스테이를 매년 가을에 하니 기장군 사람들이 분고오노의 가을 풍경밖에 모르지 않겠냐. 새해 풍경도 소개해 보자'라며 열심히 설득했습니다. 영상으로 남으니 시민들에게 좋은 추억이 되겠다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해 보니 반응도 좋았고, 처음에는 소소하게 기획을 한 게 취지가 좋라며 나중에는 시장님, 시 의회 의원님까지 출연하게 됐습니다(웃음). 영상은 기장군에 잘 보냈고 시민들에게는 CD로 선물했어요.



## - 올해 가장 기억에 남은 업무는 무엇인가요?

7월에 구스정(玖珠町) 소재 '구루시마 다케히코 기념관'의 김성연 관장님을 초청해서 진행했던 특강이요. '지역에 뿌리내린 기념관'이라는 주제였는데, 외국인으로서 구스정에 기념관을 조성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셨고 결과적으로 마을의 활성화로 이어진 것을 특강으로 해 달라고 김 관장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너무 잘해 주신 덕에 반응이 정말 좋았고, 특강을 들으러 오셨던 분들도 단순히 좋았다고 인사하시는 게 아니라 '기념관에도 꼭 가 보겠다'라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인사를 해 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또 특강을 기획하고, 초청하고, 장소를 대관하는 등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할지도 배울 수 있었어요.

## - 많은 일을 하시고 곧 부임 1년을 맞으시네요.

### 1년 동안 일해 보니 어떠세요?

지금까지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일본의 관공서에서 일해 보니 책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점이 많았어요. 또 업무에 관해서도 다양한 것을 보고 배우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옆 사람이 전화 응대를 할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하는지 유심히 들으며 따라 해 보곤 합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비즈니스 매너를 가까이서 보고 배울 수 있어서 좋아요.

### - 요즘엔 어떻게 지내세요?

아주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한국에서 생활할 때는 퇴근하고 회식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는 등 퇴근 후에 다시 일상이 시작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여기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9월(제75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는 해가 지면 온 동네가 잠드니까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게 돼요. 원래는 새벽에 잤는데 지금은 잠도 일찍 자고요, 저녁 식사도 17시 30분에 해요. 또 제철 과일이나 채소가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서는 제철이 되면 주변에서 오이, 수박 등을 주셔서 조금은 알게 됐습니다.

## - 수박을... 신기하네요.

다들 자급자족 하셔서 사 먹는다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웃음). 이렇게 그 시기에만 먹을 수 있는 채소로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다 보니 간편식이나 외식이 줄어서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 - 요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운전이요. 처음에는 시속 40킬로로 달리는 것도 덜덜 떨었지만 지금은 차를 끌고 나가사키, 야쿠시마까지 다녀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은 교통 체증이 너무 심해서 운전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여기는 조금만 나가도 아름다운 오이타의 산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드라이브의 즐거움이 어떤 건지 알게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주말에 드라이브를 나가서 맛있는 걸 먹고, 커피 한잔하고 오면 '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생겼다'라는 느낌이 드니까요.

## - 분고오노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있나요?

저희 집과 시청의 제 자리요. 이 두 곳의 공통점은 산과 하늘이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예요. 올봄에는 눈으로 계절의 변화를 처음 느꼈는데 매일매일 산과 하늘의 색깔이, 구름의 모양이 달라지는 게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감각이어서 너무 좋았어요.



## - 앞으로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분고오노시는 30년 가까이 풀뿌리 교류가 이어져 온 곳이라 이 교류가 이어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며,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한국을 알리는데에 힘쓰고 싶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즉 초중고 아이들이 한 번이라도 이문화를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늘 학교 선생님을 만나면 '아이들에게 국제 교류의 기회를 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건 어른이며 특히 선생님의 역할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한국을 알아달라'라는 게 아니라 '한국을 알게 됨으로써 국제 감각을 키우고, 이러한 감각이 나중에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더 많은 선택지를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케이팝, 한국 드라마 좋아해요'에 그치지 않고 한일 관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단계까지 뻗어나갔으면 해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문제 제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설령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언론에서 혐한 뉴스나 반일 데모가 나오더라도 자신이 느끼고 직접 만난 경험을 토대로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제가 뿌린 작은 씨앗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작은 계기로 싹을 틔울지 모르는 거니까요.

인터뷰일 : 2022년 8월 19일

기사 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oita.jp)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2년 9월(제75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20화

<단편>

나의  
스트레스  
해소일지.2



하지만 대부분 차가 없으면  
쉽게 갈수없는 곳들이어서



대테와라 습원



나가사키바나 해수욕장

마음에 꼭드는 장소를 찾기가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알려 준  
오이타역 전망대에 가게 되었는데




높아서 탁 트인덕에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을 보고  
'찾았다' 하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성향은 모두 다르고  
버틸수있는 한계치 역시 제각각이다.



힘들 때 숨을 돌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스스로에게 큰 위위가 되므로  
여러분도 자신만의 장소를 찾을수 있기를. 



여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  
사람들을 구경하며  
바람 맞으면 좋아요.